

녹차수도 보성서 전국 규모 분재대전 동시 개최

24일부터 3일간 열선공원…대한민국 차나무·전남 우수분재 대전

이순신 역사문화축제 연계…역사·자연·예술 어우러진 융합의 장

보성군이 오는 24일부터 3일간 보성열선루공원 일원에서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2025 전라남도 우수분재대전'을 동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차나무분재협회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한국남도분재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전라남도 우수분재대전'이 함께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분재 축제다.

올해는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연계 개최돼, 역사와 자연,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융합의 장을 선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은 2023년 처음 개최돼 해마다 호평 받고 있으며, 하얀 차꽃이 피어나는 10월, 차나무의 생명력과 예술미를 함께 조명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장은 열선루 주변과 광장 일대로 구성되며,

차나무 분재 70여 점과 송백류·잡목류 등 60여 점의 우수 분재 작품이 전시된다.

임봉현 보성차나무분재협회장은 "역사적인 장소인 열선루에서 차나무 분재와 전라남도 우수분재 대전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높이고, 차나무 분재의 예술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 열선루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가유산야행 ▲제2회 다·정년페스티벌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전남 우수 분재대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60여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통합축제로 진행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문화콘텐츠 작가·영세 기업 입주 모집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공간

순천시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문화콘텐츠 작가 및 소규모 기업 육성 공간' 입주 모집을 한다.

이번 모집은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창작을 준비 중인 예비·기성작가와 소규모 기업 15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와 소규모 기업은 공간 내 희망 입주실을 1~3순위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실수 심사과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입주 공간은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건물을 활용하여, 원도심 일원에 입주

하는 콘텐츠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입주작가와 기업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최저 요율의 사용료만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작가와 소규모 기업의 성장은 순천이 글로벌콘텐츠 산업도시로 꽃 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순천을 대표할 새로운 콘텐츠 기업과 작가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콘텐츠정책과(061-749-6553)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읍 5일시장 오막축제…생맥주 1잔 500원

18일 오후 5~8시 다양한 공연

구례 오막축제가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구례읍 5일시장 상설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오막축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생 및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오늘 쓰는 소비쿠폰, 내일 웃는 지역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상인회와 청년점포,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가을밤의 상생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는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고단양 상불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조정가수 고도영, 서진, 별하, 여신 등의 공연, 문화씨름의 대중가요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4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수제빵, 공예품 등의 특색 있는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 천향백미 잔치가 열리는 '천개의 향나무 숲'의 은목서.

구례 천향백미 잔치에 초대합니다

천개의향나무숲 가을맞이 잔치

구례 민간정원 '천개의향나무숲'이 오는 17일 은목서 꽃향기를 주제로 한 '천향백미(天香白味)잔치'를 개최한다.

'천향백미 잔치'는 썰매궤리·두부·백설기·전빵 등 흰색 음식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행사다. 하트모양의 은목서숲에서 발산되는 맑고 달콤한 향기와 관광객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개의향나무숲'을 민간정원 14호로 지정받아 가꾸어온 안재명·진가경 부부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서 무료

잔치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 오전 10시30분~16시까지 방문객에게 썰매궤리와 우리콩 두부, 백설기, 구례밀 전빵을 대접하게 된다.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

이번 천향백미 잔치는 은목서 빛을 의미하는 흰색 음식으로 준비했다. 전통주 명인이 구례 쌀과 은목서 향기로 막걸리를 빚었다.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 안주가 곁들여진다. 백설기와 구례밀 전빵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 '여섯 줄의 행복' 기타 동아리 연주도 행사의 분위기를 띄우는 등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월 1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내부 모습.

곡성군 청년농업인, 월 1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딸기 첫 정식

6명, 3년간 임대계약 입주 영농

곡성의 임대형 스마트팜에 처음으로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 '설향' 품종을 처음으로 밭에 심는 정식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갔다.

이번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6명은 지난 2월 공개모집과 3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딸기 정식 시기에 맞춰 9월부터 월 임대료 1만원으로 3년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의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창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입면 승전리 일원에 조성됐다. 이는 전남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30억원, 4동)과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9억원, 2동)을 연계해 완성된 것이다.

시설 내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 제어 양액재배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비닐온실 6동(동당 1300㎡ 규모), 공동창고 1개소가 들어서 있다. 군은 청년농업인이 임대 기간에 스

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농업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전문가 멘토링, 병해충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딸기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확을 위해 초기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현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기술과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보성군 올해 향토문화유산 12건 신규 발굴 등재 추진

24건 중 현지조사·심사 선정

보성군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향토문화유산 발굴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12건을 새로 발굴했다.

올해 접수된 총 24건의 대상 중 전문가 현지 조사와 평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건을 등재 추진키로 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추진될 12건은 ▲보성 거연정 ▲보성 석호정 ▲보성 밀양손씨 효자 정려 ▲보성 오봉리 광주이씨 재실 ▲보성 정응남 고문서 일괄 ▲보성 정흥수 고문서 일괄 ▲보성 충현사 전적 일괄 ▲보성 옥암리 옥정고택 ▲보성 구 청학정 ▲보성 반석리 채씨 고택 ▲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별고읍 대포리 당제와 갯귀신제이다.

이번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종합적 향토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군은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2025년 12건이 추가 지정된다면, 보성 지역이 지닌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여전히 잠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 전, 보성군 누리집을 통해 9월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이 올해 새로 발굴한 향토문화유산 12건 중 하나인 석호정.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관련자는 지정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보성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10월 중 각 유산의 지정서를 공식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정 후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존 관리·홍보·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참여형 문화유산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정이 보류된 유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향후 등재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라며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등재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저소득층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

고흥군이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비

를 지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 등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실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1회 시술 또는 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실손보험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에 대한 지

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요실금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 거문도서 24일부터 이틀간 뮤직페스티벌

EDM·소규모 라이브 공연

여수시가 오는 24일 이틀간 거문도 서도 늦길공원에서 '산다이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문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기획돼 음악 팬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주말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EDM 중심의 무대와 소규모 라이브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현장 부스에서는

거문도 막걸리 하이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식음료를 제공해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25일에는 프로그래시브 하우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DJ 제레미 올랜더(Jeremy Olander)와 TIZ 등 국내외 EDM 아티스트, 인디 뮤지션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여수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거문도를 음악과 섬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공간으로 육성하고 뮤직 페스티벌을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문

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과장은 "산다이 뮤직 페스티벌은 거문도의 밤을 빛낼 새로운 대표 콘텐츠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유입으로 체류형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스티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식 관광 누리집과 산다이 뮤직 페스티벌 누리집(https://sandaimusicfestival.imweb.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